“원행 대종사여, 화엄세계서 평온 누리소서”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 원행 대종사 영결 · 다비식 엄수

3월 16일 오대산 월정사 일원서
사부대중 2000명 참석 · 애도
종정 성파 대종사 법어로 추모
“감로법미로 무생락 누리소서”

진부 월정사=신중일 기자, 이동격 강원지사장

“자광당 원행 대종사시여! 이제 육신의 짐도, 고문의 기억도, 가람의 무게도 모두 내려놓으소서. 평생 그리셨던 화엄세계에서 이제는 ‘멀리 가는 이[遠行]’가 아니라 ‘이미 도착한 이’로 영원한 평온을 누리시옵소서.”

한암·탄허·만화 대종사로 이어지는 오대산 법통을 계승하고 선양하며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 원행 대종사(월정사 선덕)가 적멸의 길로 나아갔다.

조계종은 3월 16일 월정사 화엄루 일원에서 ‘자광당 원행 대종사 영결·다비식’을 원로회의장으로 엄수했다.

이날 영결·다비식에는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 총무원장 진우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지도자 스님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각계 인사, 지역 불자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평소 원행 스님과 인연이 깊었던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 등 한마음선원 사부대중과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도 영결식장을 찾아 애도했다.

영결식에서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원행 스님을 추모했다. 성파 스님은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상월 보선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에서 “원행 스님께서는 한암, 탄허, 만화 스님의 법통을 이어 수행하시고, 월정사 대웅전 중창 등의 가람수호와 불교중흥을 위해 정진하셨으며, 재소자 등의 교화에도 힘쓰시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모범을 보이신 이 시대의 선지식이셨다”고 회고하며 “이제 대종사 각령전에 조계의 맑은 물로 청차(淸茶)를 올리오니 감로법미(甘露法味)로 무생락(無生樂)을 누리소서”라고 설했다.

진우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스님께서는 오대산 삼화상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과 포교, 도량불사와 화합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다”며 “동해 바다의 흰 구름이 태백산맥을 넘어 다시 오대산으로 돌아오듯 혹여 아직 이루지 못한 원력이 남아 있다면 속환사바하시어 그 뜻을 다시 이루시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 원행 대종사 영결 · 다비식이 3월 16일 오대산 월정사 화엄루 일원에서 엄수됐다.

자광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스님께서는 살아생전 ‘인생은 초저녁 풋잠에 꾼 꿈에 지나지 않은 것을 알면 부처이고, 이를 모르고 꿈속에서 꿈을 꾸면 무지한 중생’이라고 설하셨다”면서 “부디 속환사바(速還娑婆)하시어 꿈속에서 꿈을 꾸는 미욱한 중생들에게 이 세상이 한바탕 부질없는 꿈임을 일깨워 주시라”고 애도했다.

문도를 대표해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추도문을 낭독하며 어른의 마지막을 기렸다. 정념 스님은 “탄허 스님께서는 스님께 ‘원행’이라는 법명과 함께 ‘멍청이가 되라’는 화두를 내렸고, 스님은 평생 ‘멍청이’라는 이름을 가장 귀중한 보물처럼 가슴에 품고 사셨다”고 회고하며 “불기 2570년 3월 12일, 우리는 스님께서 남기신 ‘멍청이’라는 이름의 고귀한 지혜와 지비심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영결식 후 원행 스님의 법구는 인로왕번을 앞세운 사부대중 만장행렬과 함께 연화대로 이운됐다. 연화대에 안치된 스님의 법구는 “스님! 불 들어갑니다”는 거화와 함께 사바세계에서 마지막 법문을 보이며 적멸로 나아갔다.

원행 스님의 49재는 △초재 3월 18일 오전 10시 오대산 월정사 △2재 3월 25일 10시 오대산 월정사 △3재 4월 1일 오전 10시 횡성 보광사 △4재 4월 8일 10시 오대산 월정사 △5재 4월 15일 오전 10시 횡성 보광사 △6재 4월 22일 오전 10시 오대산 월정사 △7재 4월 29일 10시 오대산 월정사에서 봉행된다.

자광 원행 대종사 행장

오대산 삼화상 법통 이은 ‘월정사 멍청이’

3월 12일 원적에 든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 원행 대종사(월정사 선덕)는 곧잘 스스로를 ‘월정사 멍청이’라고 불렀다. 이는 원행 스님의 에세이집 제목이기도 하다. 그 연유는 스님의 출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행 스님은 약관의 나이에 염불과 독경 소리에 이끌려 오대산 월정사로 출가했다. 오대산에 한암 스님, 탄허 스님과 같은 고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였다. 스님은 월정사에서 만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행자 생활을 하고, 탄허 스님을 법사로 수계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원행 스님은 이같이 회고했다.

“탄허 큰스님께서 ‘〈화엄경〉에 나오는 십지명(十地名) 보살 가운데 칠지 보살인 원행지가 있다. 너는 원행(遠行)이라 해라. 그리고 멍청이가 되라’고 하면서 법명을 주셨어요. 그때는 내가 똑똑하고 영리한데 왜 멍청이가 되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품었지만, 평생의 좌우명이자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오대산 삼화상’으로 널리 알려진 한암·탄허·만화 스님은 월정사 근현대 법통의 상징과도 같다. 만화 스님을 은사로, 탄허 스님을 법사로 출가해 수행정진했으니 사실상 삼화상의 법통을 이은 것과 다름없다. 원행 스님은 생전 세 선지식을 선양하기 위해 〈성인(聖人) 한암 대종사〉, 〈탄허 대선사 시봉 이야기〉, 〈만화 희찬 스님 시봉 이야기〉를 출간했다.

원행 스님은 ‘불사의 달인’이기도 했다. 은사 만화 스님을 보필하며 월정사 대웅전 중창불사를 도왔고, 폐사 직전인 대전 자광사를 중창했다. 동해 삼화사 주지 시절에는 노사나철불을 복원하기도 했다. 원주 치악산 구룡사 주지를 맡아서는 원주 지역 포교를 이끌었다.



이런 원행 스님에게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었다. 월정사 재무 소임을 맡아 일하고 수행하던 중 1980년 10·27 법난 당시 강제 연행돼 극심한 고문을 받았다. 스님은 당시 받은 고문 후유증으로 계속 고생했다.

이제는 적멸의 길로 떠난 자광 원행 대종사는 본지와 했던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대중들에게 후회 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저 들녘에 핀 꽃 한 송이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엄의 세계에서 볼 때는 온 힘을 다해 꽃피우는 민들레, 들국화, 장미는 모두 귀한 존재들입니다. 온 힘을 다 바쳐서 살아가는 존재는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불자 여러분들도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고, 자기의 온 생명을 다 바쳐 꽃피우는 꽃들처럼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정리=신중일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라마단 맞아 무슬림 돕는 동남아시아 불교계 ‘훈훈’

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 사찰
라마단 기간 ‘타크질’ 나눔
불교·이슬람 연대 공존 의미

이슬람교의 5대 의무 중 하나인 라마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시아 불교계가 단식 중인 무슬림 이웃들을 돕기 위한 음식 나눔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3월 13일, 해외 불교매체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과 ‘라디오 베리타스 아시아’ 등은 무슬림들에게 해가 진 후 먹는 식사인 ‘이프타르’를 제공하며 종교 간 연대를 실천하는 동남아 불교계의 움직임을 전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3월 7일 인도네시아 청년불교협회(YBAI)가 협회 본부 앞에서 이프타르의 시작을 알리는 간식 ‘타크질’을 무료로 나누는 행사를 개최했다. YBAI의 청년 불자들은 물과 대추야자, 빵, 과일이 담긴 타크질 꾸러미 1000개를 퇴근길 무슬림 시민들에게 나눠 주며 라마단 기간을 축하했다.

타크질은 라마단 기간 일몰 후 단식을 마칠 때 가볍게 먹는 음식으로, 이프타르의 시작을 알리는 간식이다.

YBAI 회장 리마뇨노 탄토는 이번 행사가 타인의 행복과 공덕에 공감하며 기뻐하는 ‘수희(隨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슬림 이웃들이 단식을 통해 욕망을 제어하고, 불선업(不善業)을 멀리하며 꾸준히 선행을 실천하기 위해 라마단을 지키는 모습을 보니 깊은 기쁨을 느낀다”며 “그들의 수행은 불교의 가르침과도 아름답게 어우러지기에, 청년 불자인 우리가 하루의 단식을 마치려는 사람들에게 타크질을 나눠 주는 것은 의미 있는 실천”이라고 말했다.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의 다르마지카 사원은 14년째 라마단 기간 저소득층 무슬림들을 위한 이프타르 식사 보시를 이어 오고 있다. 사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활동은 전 주지 수다난다 마하테로 스님의 발원에서 시작됐다. 스님은 생전 라마단 기간 금식하는 일용직 노동자와 걸인들을 보며, 어려운 형편에도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존엄하게 단식을 마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음식 나눔을 시작했다.

다르마지카 사원 청년부 회장 브라흐만다 바루아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오더라도 누구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며 “근처 상점에서 음식을 구입해 모두가 음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종교를 초월한 공통의 가치”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러한 활동이 불교와 이슬람 사이의 이해와 연대를 높이고, 다종교 사회에서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존중을 보여 주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방글라데시 다르마지카 사원에서 스님들이 무슬림들에게 저녁 식사인 ‘이프타르’를 보시하고 있다. 사진 출처=라디오 베리타스 아시아

중국 4대 불교성지

지장도량(구화산) 3박4일 ▶동참금 : 139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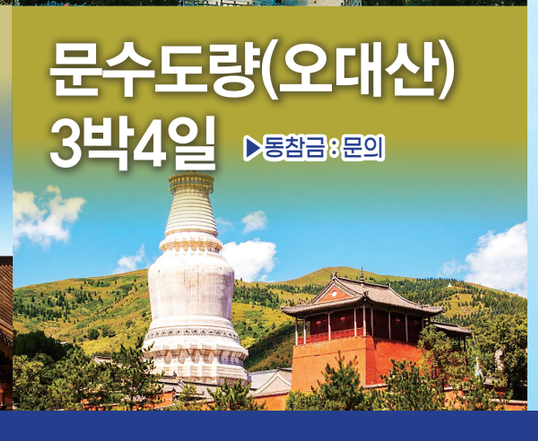
관음도량(보타산) 3박4일 ▶동참금 : 139만원~



보현도량(아미산) 3박4일 ▶동참금 :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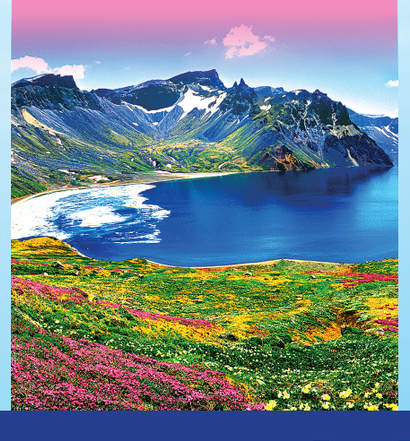


문수도량(오대산) 3박4일 ▶동참금 :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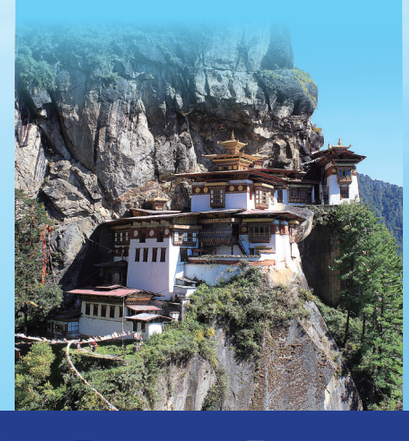
민족의 영산 백두산 3박4일

▶일 정 : 인천-연길-백두산(북파+서파)-용정-도문-연길-인천
▶동참금 : 135만원~



히말라야 설원에 꽃피운 불심 부탄 5박7일

▶일정 1 : 인천-네팔 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네팔 카트만두-인천
▶일정 2 : 인천-태국 방콕-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태국 방콕-인천
▶동참금 : 문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인도&네팔 8박10일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아그라-델리-인천
▶출발일 : 10월 29일 / 11월 4일 11월 11일 / 11월 25일
▶동참금 : 290만원~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